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축일
제37권 29호(가해) 2017년 6월 11일

[묵상]



<삼위일체 대축일>

" 하느님,
우리는 당신에 관해서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시고,
우리의 말도 뛰어 넘으십니다.
당신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는 당신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당신을 찬미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당신을!" - 성 바실리오

성삼위는 서로 다르면서도 구별됨이 없이
완전무결한 사랑의 일치에 이루고 계신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공동체이다.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
사랑으로 일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삶의 원리를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일깨워 주고 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오전	8:30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오전	7:30
	학생미사(영어)	오전	9:30
	낮 미사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레지오 마리에	오전 10:00
목요일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오전 10:00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오후 6:00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후 8:00
	배론청년회 모임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오전 중
	아도라페 성가대	오전 8:30
	글로리아 성가대	오전 9:00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00
	2째주 - ●모임의 날	오후 1:00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오후 1:00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빈첸시오회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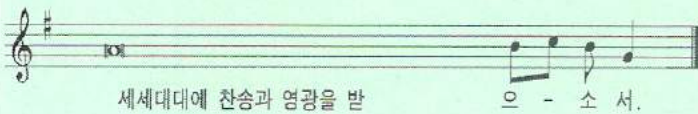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승억 헤로 & 이순자 레지나,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학생	(연) (생) 박인규 요셉 & 박인수 프란치스코
주일 낮 미사	(연)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이경영 야고보, 송봉현 요셉, 김진엽 마리아, 서성용 베드로, 천서인 레지나, 김경옥 요셉, 김홍달 요셉 (생) 김시우 레오, 박상현 스테파노, 박지민 안드레아, 신창민 토마스, 신환희 비오, 이태희 마르코, 정재윤 루치아, 최서연 셀리나, 정동호 하상 바오로가정, 정애나 세라피나 & 에릭가정, 박완철 다니엘& 박희자 마리아 가정, 손석 스테파노, 윤희동 안토니오 & 윤남열 세라피나, 서준원 & 서아란 클라라,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34,4-6.8-9

화답송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제 2독서 코린토2서 (2Corinthians) 13,11-13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요한(John) 3,16-18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개인적 권유

13.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긴급한 과제에는 모든 인류 가족을 함께 모아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에 협력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의 공동의 집의 보호를 보장하려는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에 끼치는 환경 파괴의 비극적 영향을 해결하고자 쉼 없이 노력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이 들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 누구라도 환경위기와 배척당한 이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의 건설을 내세울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합니다.

14. 그래서 저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관하여 새롭게 대화를 나눌 것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모든 이가 참여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와 인간이 일으킨 그 근원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은 이미 오랫동안 발전을 이루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여러 단체가 수립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환경위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있는 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의 관심 부족 때문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문제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남아프리카주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인간이 저지른 피해를 복구하려면 모든 이의 재능과 참여가 필요합니다.”22)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문화,경험,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 계속 >

22.남아프리카주교회의, ‘환경 위기에 관한 사목성명’(PastoralStatementontheEnvironmentalCrisis), 1999.9.5.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05	105	105
봉헌	272	272	269
성체	306	306	300
파견	312	312	105

순수한 관계로 열려있는 만큼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의 삶, 그리고 공동체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교회는 1년을 주기로 인류를 향한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전례로 거행하면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립니다.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 시기와 부활절을 지낸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끝으로 위대한 신비의 첫 번째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신비를 종합하라는 의미에서인지, 각각 다르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순 시기 때 주님의 모습을 더듬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예수님, 당신의 사사로운 영역이 없으신 아드님, 오직 세상과 인류를 향해 끝없이 열려 있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이 당신의 길이십니다. 아드님께 영역이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뿐입니다. 아버지께 한없이 열려 있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없이 열려있는 순수한 사랑의 관계에서 두 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계와 그 안의 열린 마음이야말로 삼위일체를 묵상할 수 있는 근거이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시해 줍니다. 나와 인류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심을 묵상하노라면, 그 사랑의 신비가 빛과 포근함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감싸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신자답지 못한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이라는 이기적인 틀에 얽매며 열려있지 못한 나머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흐르는 성삼위이신 사랑의 신비에 늘 몸과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빛과 포근함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면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순수한 관계로 열려있는 만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정 또한 순수한 관계에서 개방되어있는 만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순수한 관계와 열린 마음이야말로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원리와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성삼위이신 사랑의 신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고 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자 애쓰는 우리들, 성삼위의 사랑의 신비를 늘 묵상하며 그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순수한 관계와 열린 마음은 혼신의 힘을 다해 내가 추구해야 할 길이며, 중간목표이자 최종목표입니다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우린 모두 누군가의 꿈입니다.

가진 게 없어 하루 벌이가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조차도 몸을 도끼처럼 써야만 가능했습니다.
양철지붕 위로 쏟아지는 소낙비 소리처럼
감출 수 없는 가난을 오래 살아야 했지만
선한 끝은 있다고, 결국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좋은 날이 나왔다는 걸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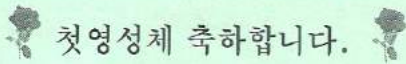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송인선 안젤라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1,2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정인욱 아오스딩	박혜경 레나타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	서용숙 에스텔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요셉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교회는 매년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예수 성심(聖心)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통해 성심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합니다.
 ☆ 오늘(6월11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입니다.
 ☆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 14세기, 교황 요한 22세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교회의 공식 축일로 지정하였고,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



첫영성체 축하합니다.

◆ 주일학교 어린이 첫영성체 예식과 축하식

- 오늘 주일(11일) 낮 11시 미사중에 8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의 성체를 처음으로 모십니다.
- 첫 영성체 대상자 :
김시우 레오, 박상현 스테파노, 박지민 안드레아, 신창민 토마스, 신환희 비오, 이태희 마르코, 정채운 루치아, 최서연 셀리나
- 예식이 끝난 후 축하식이 강당에서 있습니다.

◆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 전후 30분
- 연락처 : 정테레사 ☎(310)650-6993

◆ 2016-17년도 한국학교 2학기말 시험

- 일시: 6월 11일
- 시상식 : 6월 18일 종업식 중

◆ 2017-18년도 한국학교 1학기 등록 접수

-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접수 시 20% 할인혜택 (단SAT반 제외)

◆ 백삼위 한국학교 2016~17년도 종업식

- 일시: 6월 18일 오후 1시30분~3시
- 장소: 강당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 10년 장기 근속 공로 시상식

- 대상 : 김본경 율리아
- 시상식 : 6월 18일 학생미사 중

◆ 빈첸시오회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쉼터에 계시는 분들께 전달할 깨끗한 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6월25일까지 천교장 단상 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 매달 둘째 주일오후에 2시간 정도 쉼터에 음식을 운반하고 서빙 해 주실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땀을 소유하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요셉회 정기 총회 공고

- 일시 : 오늘주일(11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천교장
- 안건 : 신임회장 선출 및 회칙, 일년행사계획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2017 ~ 18년도 주일학교 등록 안내

- 등록: 6월 4일~7월 2일 (주일학교 재무, 교장,또는 사무실)
- 추가 필요서류: 세례, 첫영성체, 견진 증명서
- 등록서 작성요령: 가정당 등록 학생이 1명일 경우 1~3 page, 등록 학생이 2명일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
- Check payable to: 103 SKCC
(조기등록 할인(-\$20) 혜택 있습니다 : \$120, 100,80)

◆ 주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 11일:카레밥 (토동, \$3)
*주일학교 : 짜장밥(4학년)
- 6월 18일:비빔밥 (토서1,3, \$3)
*주일학교 : 파파이스 치킨(3학년)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국세찬 권태만 김경자 김기정 김상규 김상근 김양금 김원모 김은학 김일선 김정순 김현숙 남명자 박씨니 박음전 박정희 박진수 반정이 방정복 배태임 송영미 오세원 원건희 이근모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계옥 임의웅 장영우 전정일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지영 최진수 최희숙 하정화 한장환	성전헌금	국세찬 권태만 김기정 김양금 김원모 김현숙 남명자 박씨니 박음전 박정희 방정복 오세원 원건희 이근모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장영우 조준제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지영 최진수 하정화 한장환
	합계:\$3,840		합계 : \$1,930
주일미사헌금 :\$2,273	쌀 환불 : \$240	2차헌금 : \$603	5월 성물판매 이익금 :\$374

남가주 소식

◆제 23차 남가주 선택주말 (Choice Weekend)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
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일시 : 8월 11일 (금) ~ 8월 13 일 (주일)
 - 대상 : 24 ~ 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 남녀
 - 참가비 : \$300 (신부님께 본당 지원 가능 확인)
 - 신청마감: 6월 18일
 - 대표전화: 팍효신 미카엘 (213) 568-5470
또는 23rdchoiceweekend@gmail.com
-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성 토마스 성당 하루 피정 "오늘"

- 일시: 7월 1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 장소: 본당 토마스홀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참가비 : \$15.00(간식,점심 포함)
- 신청 : 6월첫 주부터 (선착순70명)
- 문의: Clare Chung (chiaralite@gmail.com)

◆미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특강안내

- 주제 : 용서-평화의길
- 강사 : 송봉모 신부(예수회)
- 일시 : 7월1일 (토)저녁 7시~9시,
7월2일 (주일)오후2시~5시
- 장소 : 성아그네스 성당
- 신청마감 : 6월29일(목)
- 문의 : 하세실리아 ☎ (323)578-2230,(562)233-7163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최성자 카타리나 06/07(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김찬구 요한 06/10(토) 오후6시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이경 카타리나 06/10(토)오후8시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인식 토마스 06/20(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명렬 라파엘 06/10(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태은 비비안나 06/17(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최옥희 테레사 06/23(금)오후7시30분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06/19(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송미숙 미카엘라 06/17(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현주 카타리나 06/11(일)오후6시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06/09(금) 오후6시 성당2층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남 베네딕도 06/09(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06/10(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윤현정 토마스 06/17 (토) 오후6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06/13(화)오전10시30분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체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성삼위와 글쓰기

어쩌면 직업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때론 성경을 읽을 때, 때론 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보곤 합니다. 어느 날 ‘중3’인 딸이 “아빠, 글쓰기는 어떻게 해?”라고 물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기사를 쓰거나 고치는 일이라 쉽게 대답할 수 있으려니 했는데 막상 딱치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끼는 대로 네 생각대로 쓰면 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조리있게 하면 돼”라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애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까?’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이리저리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평소 접하는 기도문을 갖고 설명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음, 그래. 서론, 본론, 결론이 가장 기본적 골격이니... 성호경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께서 서론, ‘성자’께서는 본론, ‘성령’께서는 결론인 셈이지요.

성부께서는 우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그 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수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로부터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돌보시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론은 주제의 시작을 알리며 관심을 끌게 합니다. 본론은 전체의 핵심이자 중심입니다. 결론은 글을 마무리하며 읽는 이를 끌어들이어 일체가 되게 합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은 서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돼 하나를 이뤄야 좋은 글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몸이지요.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미사 시간에 따라 사도신경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바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골격을 짜고 외웠더니 됐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 하느님의 외아들 /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그런데 “이건 지식인데...”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묵상을 더하고, 고요히 머무름을 버무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주영 첼레스티노 / 조선일보 부산취재본부장

[길을 찾는 그대에게]

‘복음을 살라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해서 내용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 복음을 사는 것이지요?

☞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단순히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렛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다름 아닌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살라는 말은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예수님께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과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선 구석으로 밀려나는 가치들이 복음에선 중심을 차지합니다. 성김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스림에 더 높은 가치를 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성김에서만 참된 권위가 오기에, 성김이야말로 참된 다스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로 서로 섬기고자 할 때, 서로 용서하고자 할 때 복음의 가치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해 보라 권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바꾸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사도 신경

우리가 매 주일 미사 때 사제의 강론에 이어 바치는 사도신경(使徒信經)의 라틴어 첫 문장입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우리말로 옮기면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입니다. 주일 미사 때마다 외워서 바치는 사도신경을 흔히 '신앙고백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말마디가 Credo(크레도, 뜻은 '나는 믿나이다')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크레도는 비록 짧은 단어이지만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12가지 신조(信條)는 이 시작의 말인 '크레도'를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Credo)의 출발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신앙고백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둘째는 사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사도 9,20)

셋째는 하느님의 세 가지 존재 양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태 28,19)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고백이 원형이 되어 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탄생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경의 요약이기에 성경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의 숨은 다이내믹, 그 힘이 신경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확증해야 했기에 교부들은 오랜 논쟁과 검증 거쳐 7세기에 지금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크레도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히브 11,6)

◆ 김지영 사무엘 신부

Quiz 우리 신앙의 근원 사도신경 기도문입니다. 기도서를 보지 않고 직접 외워 괄호 안의 부분을 채워보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6월4일 자 정답:

	성		성	체	포		성		미	
	가						성	체	성	사
제	대		존	경		체				
			엄			조			감	실
현	존		성	함		배			사	

「성경 속 동식물」 23 이집트인들이 즐겨 먹던 식물이자 음료인 수박

성경에는 단 한 번 민수기에 수박이 등장한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터뜨리며 이집트 땅에서 먹던 음식을 생각하는 대목에서 수박이 등장한다.(민수 11,4-6 참조)

이집트에서는 4000년 전부터 재배된 사실이 오늘날 남아 있는 벽화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집트인들에게 수박은 식물인 동시에 음료이면서 또한 약이 되기도 했다. 수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을 식히는 중요한 과일이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풀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반찬,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 중, 고, 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쳐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